Ⅲ. 지역경제일지(2019.12.1~12.31일)

▷ 12.8일: 인천경제자유구역청, EMP 벨스타*와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국내 최대 저온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MOU 체결

* 미국 사모펀드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경기도 평택 오성산단에 저온복합물류센터를 운영중

ㅇ 동 시설이 건립되면 부산항·평택항에 비해 냉동·냉장 물류시설이 부족했던 인천항이 수도권 냉동·냉장 물류의 핵심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

▷ 12.12일: CJ CGV, 상상플랫폼* 운영사업자 지위 포기

* 해양수산부, 인천광역시, 인천항만공사 등이 진행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천 내항 8부두 곡물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

ㅇ 사업성 저하로 지난 8월 철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 이어 CJ CGV도 공공부지 비율(전체 면적의 47%)이 높아 수익성이 낮은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운영사업자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인천 내항 8부두 재개발 사업이 난항

— 인천광역시는 동 사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한편 공공부지 면적, 토지이용계획 및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방안을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

▷ 12.15일: 산업통상자원부, 제2차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*의 '수소생산 클러스터' 부문에 인천테크노파크 선정

* 기술개발, 인력양성,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권역별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.10월 생산, 저장·운송, 모빌리티, 연료전지 발전 등 4개 부문의 예비타당성 조사연구 과제를 공모

ㅇ 인천테크노파크는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인천광역시,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, 연세대학교, 현대로템(주)와 함께 1년 6개월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연구를 진행할 예정

— 예비타당성 조사연구가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 수도권매립지의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'수소생산 클러스터'가 조성되어 인천시가 수소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

▷ 12.17일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'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(안)' 발표

ㅇ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업과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정보산업 부지를 확대하는 한편, 행복주택 건립 등을 통해 주거·공공시설 용지를 확대할 계획

▷ 12.22일: 인천공항, 여객 및 화물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

ㅇ 인천공항은 정규취항 전단계인 임시편 개설단계부터 마케팅비용을 지원하고 전략노선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의 취항비용 지원을 통해 여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, 화물기 착륙료 및 물류기업 주차료 감면을 통해 화물 유치를 지원할 예정

▷ 12.24일: 인천항만공사, 인천항 입국 여객수 200만명 돌파 발표

ㅇ 국제카페리를 통한 중국 단체관광객 증가, 신조선을 활용한 내국인 관광상품 출시 등에 힘입어 2019년(12.24일 기준) 인천항 입국 승객이 전년대비 12% 증가한 201만 2,573명을 기록하여 2013년 이후 6년만에 여객수 200만명 수준을 회복

▷ 12.26일: 국토교통부, 거점연계 뉴딜 시범사업에 '동인천역 2030 역전(逆轉) 프로젝트' 선정

ㅇ 2024년까지 총 2,100억 규모로 추진 예정인 동 사업을 통해 동인천 원도심 중심지가 기존의 낙후된 이미지에서 2030 세대가 즐겨 찾는 상업·문화 중심지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

▷ 12.29일: 인천항, 2019년 컨테이너 물동량 7년만에 감소 전환 발표

ㅇ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인천~중동 항로 물동량 감소*, 경기둔화에 따른 수도권 기업체의 수출입 물동량 감소 등으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 달성 시기가 2018년보다 4일 지연되었으며, 2019년 총 컨테이너 물동량(309.2만TEU)도 전년(312.1만TEU)보다 소폭 감소

* 2018.8월 동 항로가 단절됨에 따라 연간 4만TEU의 물동량이 감소